

음주 · 흡연습관이 피부건강, 화장습관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Drinking and Smoking on Skin Health and Make-up

이선희 · 최 가 · 나영순*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보건학과, 건양대학교 미용디자인학과*

Sun-Hee Lee · Ga Choi · Young-Soon Na*

Dep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Wonkwang University,

Dept of Beauty Design, Ko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providing the basic data for an informative and educational program designed to give a guideline how to keep and care the skin healthy and proper. Female freshmen, enrolled in colleges in Jeonbuk provincial area, were surveyed about their status of health and way of skin care and make-up. The results of research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268 students(65.4%) were 19 years old or younger. Among the respondents, 219 persons(54.4%) lived in small or medium cities and 271(66.1%) showed less than 20 of body mass index(kg/m²).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dwelling place, drinking habit(p<0.05), and subjective health status(p<0.05) with health, skin care and make-up habit. Third, drinking, subjective health status appeared to b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facial skin(p<0.05) and health status(p<0.01), respectively. Forth, smoking and regular meal seemed to affect the length of make-up(p<0.05) and smoking esd strongly connected with the extent of make-up. The way of thinking about cosmetics were affected by the habits of drinking(p<0.05) and smoking(p<0.01), respectively. Drinking habit was the significant variable of health affecting on the belief in the effect of cosmetics Fifth, skin health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rinking and smoking habits and positively with subjective health status, BMI(kg/m²) and frequency of make-up. Sixth, healthier state of facial skin appeared to be happen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p<0.01)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and with a person of higher than 20 of BMI(kg/m²) than of less than 20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re were meaningful correlations between the status of health and make-up among female freshmen. Accordingly, the concept of health reinforcement can be adopted to skin care and skin maintenance, so various and comprehensive approaching methods were required to improve and reinforce the skin management and cosmetic culture.

I. 서 론

우리 신체건강에서 신체의 일부분인 피부의 건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누구나 곱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얼굴에 있는 결점을 감추고 남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젊음을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피부미용과 관련된 화장품을 애용하고 있다(조영옥 1993; 김복희 등 1995).

화장품이 제공하는 쾌적함은 개개상품을 사용하는

마음이나 색채감각의 아름다움 등 개별적인 감정적 가치에 머물지 않고 젊은이다운이나 자기표현, 사회에서의 연출의 즐거움 등의 생활의 질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치장이라고 하는 생활 활용을 통해 실현된다(김봉인, 1995). 약사법에는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의 청결 또는 미화하기 위하여 도찰, 살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김남수 등, 1994).

‘미용이란 결점을 보완하여 수정 한다’는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건강한 피부를 돋보이게 한다」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피부 관리는 미용의 한 부분으로서 건강한 피부의 조건은 피부표면에 적당한 수분기가 있고 매끈하고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며 광택과 생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고 유지

* Corresponding Author: Young-Soon Na
Tel: 063-855-5999 H.P : 017-635-9090
E-mail: gala00kr@yahoo.co.kr

하기 위하여 화장을 한다고 볼 수 있다(김남수 등, 1994)

특히 대부분의 여성들이 화장품을 거의 습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대생들이 화장의 목적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음주와 흡연이 얼굴 피부건강과 화장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고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북지역 대학교 중 집락랜덤추출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여 5개 대학을 선택하였고, 여대생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self-reported questionnaire)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9월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교육받은 조사원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500부를 배포하여, 410부의 설문을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82%였다.

2.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20대 여대생의 외제 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피부 적합성 비교 연구」(고혜정, 1996), 「생리적 현상에 따른 피부상태의 조사연구」(최정숙, 1998), 「여성의 피부미용관리지식 및 행태와 관련요인」(김복희, 1998)에서 설문을 참고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체질량 지수)과 음주·흡연 습관이 화장습관(화장 횟수, 소요시간, 개념, 효과)과 피부건강상태(얼굴피부 건강상태, 스트레스 후 피부반응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4. 자료 분석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이와 관련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이용한 단변량 분석, 각 변수별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주·흡연 습관과 화장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의 결과 및 논의

1. 일반적 특성별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체질량 지수(kg/m²)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20세 이하 268명(65.4%), 20세 이상 142명(34.6%)이었다. 체질량 지수(kg/m²)는 20세 이하 271명(66.1%), 20세 이상 139명(33.9%)이었다(표1).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대상자수 (명)	백분율 (%)
연령		
20세 이하	268	65.4
20세 이상	142	34.6
체질량 지수(kg/m ²)		
< 20	271	66.1
20 ≤	139	33.9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흡연 습관 및 피부건강 상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흡연 습관 및 피부 건강상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중 343명(83.9%)이 음주집단하였고, 흡연집단은 72명(17.6%)이었다. 피부건강 상태의 분포를 보면 전체 대상자 중 125명(30.5%)이 복합성(지루성 포함) 피부 유형이었으며, 248명(60.5%)이 스트레스 후 피부반응이 가끔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얼굴 피부 건강 상태가 '보통'인 집단은 221명(53.9%)이었다. 얼굴 피부유형이 20세 이하에서 중성 79명(29.5%)으로 높은 반면, 20세 이상 집단에서는 복합성(지루성 포함) 56명(39.4%)으로 얼굴 피부유형과 연령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2).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음주, 흡연습관

	계	연령		체질량 지수(kg/m ²)	
		19세 이하	20세 이상	< 20	20 ≤
음주					
음주	343(83.9)	225(84.3)	118(83.1)	224(82.7)	119(86.2)
비음주	66(16.1)	42(15.7)	24(16.9)	47(17.3)	19(13.8)
흡연					
흡연	72(17.6)	50(18.7)	22(15.5)	46(17.0)	26(18.7)
비흡연	338(82.4)	218(81.3)	120(84.5)	225(83.0)	113(81.3)
얼굴 피부유형					
건성	68(16.6)	40(14.9)	28(19.7) * *	50(18.5)	18(12.9)
지성	97(23.7)	68(25.4)	29(20.4)	67(24.7)	30(21.6)
중성	101(24.6)	79(29.5)	22(15.5)	62(22.9)	39(28.1)
복합(지루)	125(30.5)	69(25.7)	56(39.4)	78(28.8)	47(33.8)
모르겠다	19(4.6)	12(4.5)	7(4.9)	14(5.2)	5(3.6)
스트레스후 피부반응					
전혀 무관	45(11.0)	27(10.1)	18(12.7)	30(11.1)	15(10.8)
가끔	248(60.5)	172(64.2)	76(53.5)	162(59.8)	86(61.9)
잘 생김	117(28.5)	69(25.7)	48(33.8)	79(29.2)	38(27.3)
얼굴 피부 건강					
좋다	72(27.6)	48(17.9)	24(16.9)	46(17.0)	26(17.6)
보통	221(53.9)	140(52.2)	81(57.0)	146(53.9)	75(53.9)
나쁘다	117(28.5)	80(29.9)	37(26.1)	79(29.2)	38(28.5)

* * p<0.01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화장습관

화장습관을 보면 총 대상자 중 144명(35.2%)이 매일 화장하는 집단이었으며, 화장시간은 11-29분이 160명(39.0%)으로 가장 많았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140명(34.1%)이 계절마다 다르다고 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223명(54.4%)이 얇게 화장한다 하였고, 화장품의 개념은 186명(45.4%)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화장품은 피부개선(노화방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177명(43.2%)으로 가장 많았다(표3).

2. 음주·흡연 습관별 연구 결과

1) 음주·흡연 습관과 피부 건강상태와의 관계

음주·흡연 습관에 따른 피부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음주집단에서 얼굴 피부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3명(88.8%)으로 많았으며, 비음주 집단에서 얼굴피부건강 상태가 보통 35명(15.8%)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가장 많았다(p<0.05). 주관적 건강상태별 얼굴 피부건강상태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때 얼굴 피부건강상태가 보통 102명(46.2%)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때 얼굴 피부건강상태가 나쁘다 21명(17.9%)으로 가장 많았다(p<0.05)(표4).

2) 음주·흡연 습관별 화장습관(화장횟수 및 시간)의 관계

음주·흡연 습관별 화장습관 중 화장횟수와 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흡연집단의 화장시간은 30분 이상이 37명(33.6%)으로 많았으며, 비흡연 집단의 화장시간을 보면 11-29분 141명(88.1%)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p<0.05)(표5).

5) 음주·흡연 습관별 화장습관(자외선 차단제 사용 및 화장정도)의 관계

음주·흡연 습관별 화장습관 중 자외선 차단제 사용 및 화장정도와와의 관계를 보면, 비흡연 집단에서 화장정도는 얇다 196명(87.9%)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집단에서는 질다 12명(37.5%)으로 많아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표6).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화장습관

계	연령		체질량 지수(kg/m ²)	
	19세이하	20세이상	< 20	20 ≤
화장 횟수				
매일	144(35.2)	91(34.0)	105(38.7)	39(28.3)
1-3회/주	93(22.7)	56(20.9)	62(22.9)	31(22.5)
안함	43(10.5)	32(11.9)	22(8.1)	21(15.2)
화장시간(분/회)				
10분 이하	93(22.7)	60(22.4)	65(24.0)	28(20.1)
11-29분	160(39.0)	108(40.3)	103(38.0)	57(41.0)
30분 이상	157(38.3)	100(37.3)	103(38.0)	54(38.8)
자외선차단제사용정도				
매일	88(21.1)	54(20.1)	60(22.1)	28(20.1)
4-5회/주	33(8.0)	21(7.8)	24(8.9)	9(6.5)
계절마다 다름	140(34.1)	95(35.3)	86(31.7)	54(38.8)
화장정도				
질다	32(7.8)	20(7.5)	24(8.9)	8(5.8)
보통	155(37.8)	92(34.3)	102(37.6)	51(38.1)
얇다	223(54.4)	156(58.2)	145(53.5)	78(56.1)
화장품의 개념				
아름다움	186(45.4)	128(47.8)	129(47.6)	57(41.0)
습관(기호)	74(18.0)	45(16.8)	50(18.5)	24(17.3)
피부보호	150(36.6)	95(35.4)	92(33.9)	58(41.7)
화장품의 효과				
정결과 청결	98(23.9)	65(24.3)	64(23.6)	34(24.5)
피부개선	177(43.2)	113(42.2)	116(42.8)	61(43.9)
도움안됨	135(35.9)	90(33.6)	91(33.6)	44(31.7)

* p<0.05

<표 4> 음주·흡연 습관과 피부 건강상태와의 관계

	화장 횟수				화장시간(분/회)		
	매일	4-5회/주	1-3회/주	안함	10분이하	11-29분	30분이상
음주							
음주	116(80.6)	111(86.0)	76(81.7)	39(92.9)	78(83.9)	133(83.1)	132(84.6)
비음주	28(19.4)	18(14.0)	17(18.3)	3(7.1)	15(16.1)	27(16.9)	24(15.4)
흡연							
흡연	21(14.6)	24(18.6)	16(17.2)	11(25.6)	16(17.2)	19(11.9)	37(23.6) *
비흡연	123(85.4)	105(81.4)	77(82.8)	32(74.4)	77(82.8)	141(88.1)	120(76.4)
주관적건강상태							
건강	63(43.8)	58(45.0)	42(45.2)	19(44.2)	46(49.5)	73(45.6)	64(40.8)
보통	67(46.5)	60(46.5)	42(45.2)	16(37.2)	35(37.6)	74(46.3)	76(48.4)
불건강	14(9.6)	11(8.5)	9(9.7)	8(18.6)	12(12.9)	13(8.1)	17(10.8)

6) 음주·흡연 습관별 화장품의 개념 및 효과의 관계

음주·흡연 습관과 화장품의 개념 및 효과의 관계를 보면, 화장품에 대한 개념별 음주집단에서 습관이

67명(90.5%)으로 아름다움을 위해서나 피부보호 효과보다 높았으며, 비음주군에서 피부보호가 35명(23.3%)으로 아름다움이나 습관(기호)보다 높았다(p<0.01). 비흡연집단에서 피부보호를 위해서가 133명(88.7%)으로

<표 5> 음주·흡연 습관별 화장습관(화장 횟수 및 시간)의 관계

	얼굴 피부유형				스트레스 후 피부반응			얼굴 피부건강 상태		
	건성	지성	중성	복합성+지루성	무관	가끔	잘생김	좋다	보통	나쁘다
음주										
음주	54(80.6)	87(89.7)	81(80.2)	104(83.2)	40(88.9)	206(83.1)	97(83.6)	54(75.0)	186(84.2)	103(88.8)
비음주	13(19.4)	10(10.3)	20(19.8)	21(16.8)	5(11.1)	42(16.9)	19(16.4)	18(25.0)	35(15.8)	* 13(11.2)
흡연										
흡연	13(19.1)	19(19.6)	20(19.8)	16(12.8)	13(28.9)	40(16.1)	19(16.2)	17(23.6)	38(17.2)	17(14.5)
비흡연	55(80.9)	78(80.4)	81(80.2)	109(87.2)	32(71.1)	208(83.9)	98(83.8)	55(76.4)	183(82.8)	100(85.5)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37(54.4)	46(47.4)	44(43.6)	48(38.4)	22(48.9)	118(47.6)	43(36.8)	36(50.0)	102(46.2)	45(38.5) *
보통	23(33.8)	42(43.3)	49(48.5)	61(48.8)	19(42.2)	110(44.4)	56(47.9)	30(41.7)	104(47.1)	51(43.6)
불건강	8(11.8)	9(9.3)	8(7.9)	16(12.8)	4(8.9)	20(8.1)	18(15.4)	6(8.3)	15(6.8)	21(17.9)

p<0.05

<표 6> 음주·흡연 습관별 화장습관 (자외선 차단제 사용 및 화장정도)의 관계

	자외선 차단제 사용정도					화장 정도		
	매일	4-5회/주	1-3회/주	안함	계절마다 다름	짙다	보통	얇다
음주								
음주	70(79.5)	26(78.8)	26(78.8)	103(89.6)	118(84.3)	25(78.1)	123(79.4)	195(87.8)
비음주	18(20.5)	7(21.2)	7(21.2)	12(10.4)	22(15.7)	7(21.9)	32(20.6)	27(12.2)
흡연								
흡연	11(12.5)	5(15.2)	9(27.3)	17(14.7)	30(21.4)	12(37.5)	33(21.2)	27(12.1) * *
비흡연	77(87.5)	28(84.8)	24(72.7)	99(85.3)	110(78.6)	20(62.5)	112(78.7)	196(87.9)
주관적건강상태								
건강	40(45.5)	14(42.4)	14(42.4)	49(42.2)	66(47.1)	17(53.1)	73(47.1)	93(41.7)
보통	41(46.6)	18(54.5)	16(48.5)	53(45.7)	57(40.7)	11(34.4)	70(45.2)	104(46.6)
불건강	7(8.0)	1(3.0)	3(9.1)	14(12.1)	17(12.1)	4(12.5)	12(7.7)	26(11.7)

* * p<0.01

<표 7> 음주·흡연 습관별 화장품의 개념 및 효과와의 관계

	화장품에 대한 개념			화장품 효과 믿음		
	아름다움	습관(기호)	피부보호	정결과건강	피부개선	도움안됨
음주						
음주	161(87.0)	67(90.5)	115(76.7) *	76(77.6)	147(83.1)	120(89.6) *
비음주	24(13.0)	7(9.5)	35(23.3)	22(22.4)	30(16.9)	14(10.4)
흡연						
흡연	35(18.8)	20(27.0)	17(11.3) *	17(17.3)	28(15.8)	27(20.0)
비흡연	151(81.2)	54(73.0)	133(88.7)	81(82.7)	149(84.2)	108(80.0)
주관적건강상태						
건강	89(47.8)	31(41.9)	63(42.0)	50(51.0)	80(45.2)	53(39.3)
보통	76(40.9)	34(45.9)	75(50.0)	37(37.8)	83(46.9)	65(48.1)
불건강	21(11.3)	9(12.2)	12(8.1)	11(11.2)	14(7.9)	17(12.6)

* p<0.05, * * p<0.01

아름다움을 위해서나 습관(기호) 보다 높고, 흡연집단에서는 습관(기호)이 20명(27.0%)으로 아름다움이나 피부보호를 위해서 보다 높았다($p<0.05$).

화장품에 관한 효과는 음주집단에서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20명(89.6%)으로 피부개선, 청결과 건강 보다 많았고, 비음주군에서 청결과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22명(22.4%)으로 피부개선, 도움 안됨 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많았다($p<0.05$)(표7).

3. 연구 변수간 상관분석

음주·흡연 습관과 주관적 건강상태($r=-0.14, p<0.01$)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체질량지수(kg/m^2)와 화장횟수($r=0.12, p<0.05$)는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피부건강상태($r=0.12, p<0.05$)는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8).

4. 로지스틱 회귀분석

얼굴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체질량 지수(kg/m^2)는 20세 이상에서 얼굴건강이 좋다($p<0.01$)고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마른 사람보다 살찐 사람일수록 얼굴 피부 건강상태가 좋다고 하였다(표9).

I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한 결과 및, 피부의 건강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알맞은 음주·흡연 습관과 화장품의 적절한 사용에 도움을 주기위한 시사점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흡연 습관과 화장습관과 관계를 조사하였고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얼굴 피부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연령은 20세 이하 268명(65.4%)으로 많았고, 체질량 지수(kg/m^2)는 20세 이하 271명(66.1%)으로 많았다. 전체 대상자 중 343명(83.9%)이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72명이 흡연습관(17.6%)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 중 매일 화장하는 집단은 144(35.2%)명이었고, 아름다움을 위한 필수품이라 생각하는 집단이

186명(45.4%)이었으며, 피부개선에 효과가 있다 177명(43.2%)으로 나타났다.

둘째, 얼굴 피부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음주,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p<0.05, p<0.01$).

셋째, 음주·흡연 습관과 화장습관의 관계를 보면 화장시간과 화장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흡연이 유의하였다($p<0.05, p<0.01$). 화장품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음주로 도출 되었다.

넷째,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피부 건강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음주·흡연 습관과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체질량 지수(kg/m^2)와 화장횟수에서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피부건강상태는 신체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른' 체형을 가진 대상자가 매일 화장을 하였는데 김복희(1998)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로써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집단보다 외모(몸매)에 신경 쓰고, 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개념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음주, 흡연이 유의한 변수였다($p<0.05, p<0.01$).

다섯째, 회귀분석 결과, 얼굴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은 체질량 지수(kg/m^2)가 20세 이상에서 얼굴건강이 좋다($p<0.01$)고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마른 사람보다 살찐 사람일수록 얼굴 피부 건강상태가 좋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얼굴 피부 건강상태와 화장습관에 공통적으로 도출된 변수는 음주·흡연 습관이었다. 피부미용의 생명인 적당한 수분을 가지는 것이다. 각종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 촉촉한 피부로 바꾸기 위함인데 알콜이 신체에 섭취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혈관이 확장되고, 식욕이 증진되거나, 위액분비가 촉진되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하게 된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진다. 담배속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체내의 혈액 순환이 잘 안되어 피부표면까지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한다. 또한 담배연기도 얼굴피부를 건조시키는 작용을 하며 연기 속에 포함된 각종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한다. 수분을 운반하는 혈액의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피부는 탄력성을 잃고 주름이 생길 수 있고, 담배속의 각종 화학물질이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인다. 화장의 개념에서 음주 습관을 가진 집단의 경우 습관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며, 화장품의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거칠어진 피부를 커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화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것에 비하여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로 화장이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 하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하고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손상된 얼굴 피부가 화장으로 커버하려 할수록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남수(1994). 메이크업 화장품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김병우(1998). 피부관리학. 향장학, 유신문화사, pp. 45-46.
 김영숙, 윤혜상(1994). 기초의학. 수문사, pp. 247-280.
 김종대, 전성경, 최현숙(1994). 피부관리학. 고문사, pp. 9-12.
 박미영(1993). 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관련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중원(1992). 안면 피부의 나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형태학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여성(1996). 신피부관리학. 도서출판 가림, pp .180-201.
 이경혜(1995). 여성건강에 대한 개념 분석 연구. 여성건강 학회지, 1(2), pp. 222-233.
 이석준(1998). 직업 여성들의 건강실태에 관한 조사.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이지영(1998). 여대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화장품 소비행동.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영옥(1993). 여성과 화장품. 건강소식(10), pp. 43-47.
 최정숙, 광형심(1997). 여성의 기호성과 피부관리습관에

따른 피부상태의 조사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3(1), pp. 241-258.
 Berardesca, E.(1998). Sensitive and Ethnic skin; A need for Special Skin-Care Agents? Cosmetics and cosmetic surgery in Dermatology
 Eckstein, R.A. (1998) Biocosmetics, *Dermascope*. pp. 25-28.
 Elliot,T J.(1984). Cosmetic-functional and aesthetic?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p. 6, p. 231.
 Jerkins, H.L.(1989). Progressive evaluation of skin imitancy of cosmetic. *Intem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11, p141-142, 1989
 Marieb, E.N.(1995).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pp. 135-154.
 Skog, E.(1994). Incidence of dermatitis 6. p. 449.
 Sladden, M.J.(1989). Ethnic differences in the patten of skin disease seen in a dermatology department. *Clinical and Experimental Dermatology* 16, p348-349.
 Tetsuro, Sugai.(1994). Skin care with topical hypoirritant and hypoallergic product franance. *Journal* 13.
 Theberge, L. & Kernaleguen, A.(1979). Importance of Cosmetics Related to Aspects of the Self.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8, 827-830.

(2003. 11. 19 접수; 2004. 02. 03. 02 채택)